



[뉴스] 정용진의 '유통X야구' 신세계의 모든길 '야구'로 통한다 02



Economy

코스피	↑	3087.40 (+25.98)	코스닥	↑	965.78 (+9.61)
금리 (국고채 3년)	↑	1.138 (+0.005)	환율 (원-달러)	↑	1131.90 (+0.10) (1일)



비트코인, 또 역대 최고가 경신 비트코인이 7,200만원대를 찍으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 7,100만원대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압정동 라온에서 직원들이 가상화폐 시세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시스

LG-SK 배터리 분쟁 새 국면 美 ITC “SK, 특허 침해 아냐”

LG “남은 절차서 입증할 것” 양사 합의금 협상 영향 ‘촉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 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특허권 침해 소송 예비결정에서 SK에 판정승을 내리며 ‘배터리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9월 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 전지 사업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을 특허권 침해로 제소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당시의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 특허 3건과 양극재 미국 특허 1건 등 총 4건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ITC는 세부적으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517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의 효용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해당 특허가 DI(미국내 산업)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SK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이외의 특허 3건(SRS 152-241, 양극재 877)에 대해서는 특허에 대한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ITC의 발표는 예비결정이며 소송은 오는 8월 2일 ITC위원회의 최종 결정 과정을 통해 확정된다. 다만 이 같은 예비결정이 최종 판결까지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지난 2월 ITC가 양사간 영업비밀 침

해 소송의 최종 판결을 사실상 예비결정을 그대로 인용해 SK에 10년간 미국내 수입금지를 명령했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남아있는 소송 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효용성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핵심 특허인 517 특허가 효용성은 인정받은만큼 침해 입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며 “152 특허 및 양극재 특허에 대해서는 효용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효용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개된 특허와 달리 독립되고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도 이날 입장을 내고 “ITC의 결정을 환영한다. 오랜 기간 자체적으로 우수한 배터리 기술을 개발해 ITC가 비침해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예비결정은 당사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라며 “LG가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고 해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예비결정으로 인해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협상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제기된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내 2차 전지 관련 영업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LG에너지솔루션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양사가 요구하는 합의금 규모가 수조원 차이를 보여 최종 판결 이후 한 달 여가 지났지만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지 기자

m-커버스토리

‘K-배터리’ 4반세기 투자 결실 국내 빅3, 세계 전기차 ¼ 점유

K-배터리

전 세계적 친환경 기조에 2차전지 시장 큰 폭 성장

LG·삼성·SK 배터리 3社: 글로벌 시장 점유율 27%

최근 산업계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 중심에서 ‘K-배터리’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이 지금과 같은 성장 가도를 내달리기까지의 역사를 되짚어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2차 전지 시장은 최근 전 세계적 친환경 기조에 힘입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기차는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연기관차를 대체하기 위한 공급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만큼 전기차의 핵심 동력원인 배터리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관련기사 3면>

실제 올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유럽, 미국, 중국의 친환경 정책 아래 지난해 대비 80% 이상 성장한 236GWh(기가와트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K-배터리’ 3사도 이미 글로벌 전기차배터리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입지를 다져놓은 상태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월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순위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2위,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은 각각 5위와 7

<지난 1월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단위: GWh)

순위	제조사명	2020년 1월	2021년 1월	성장률	2020 점유율	2021 점유율
1	CATL	1.6	4.3	166.2%	22.8%	31.2%
2	LG에너지솔루션	1.7	2.5	50.6%	23.9%	18.5%
3	파나소닉	1.4	2.1	51.9%	19.9%	15.6%
4	BYD	0.3	1.2	381.9%	3.6%	8.9%
5	삼성SDI	0.5	0.7	18.6%	7.8%	4.8%
6	CALB	0.0	0.6	1087.1%	0.7%	4.1%
7	SK이노베이션	0.3	0.5	68.5%	4.5%	3.9%
8	Guoxuan	0.2	0.3	68.4%	2.7%	2.3%
9	AESC	0.4	0.2	-30.5%	5.1%	1.8%
10	PEVE	0.2	0.2	3.8%	2.6%	1.4%

/자료:SNE리서치

위에 안착했다.

이 같은 K-배터리의 글로벌 시장에 대한 선제적인 점유는 오랜 역사가 바탕이 돼 가능했다. 지난해 12월 LG화학 전지사업부에서 물적분할 후 공식 출범한 LG에너지솔루션은 1995년 리튬이온전지 개발을 시작했다. 이후 1998년 국내 최초 리튬이온전지를 상업화하고, 월 50만 셀 규모의 대량 생산체제를 구축했다. 또, 2000년에 들어서며 전지자동차용 중대형 2차 전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삼성SDI는 설립 당시부터 2차 전지에 주력해왔던 기업은 아니다. 당초 1970년 ‘삼성-NCE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창업해 2차 전지가 아닌 디스플레이를 주요 성장동력으로 30여 년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2009년 새로 출범한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현 삼성디스플레이)에 AMOLED 관련 사업 및 인력을 넘겨줬고, 2013년 PDP 사업을 정리해 본격적인 2차 전지 기반 ‘친환경 에너지·소재 솔루션

사업’으로 발돋움했다.

다만 삼성SDI는 1994년 배터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1999년 충청남도 천안에서 2차 전지 생산 공장 기공식을 진행했다. 이후 2000년 드디어 양산 배터리를 내보이며 본격적인 2차 전지 사업 확대에 나섰다. 삼성SDI는 2005년 2차 전지 부문(소형 배터리)서 최초 흑자를 달성하며 이와 함께 전지자동차용 배터리 사업에 진출했다.

SK이노베이션은 1982년 당시 선경그룹(현 SK그룹)이 인수한 대한석유공사가 사명을 ‘유공’으로 바꾸면서 ‘에너지 축적 배터리 시스템’을 미래 사업으로 선택한 것이 지금 2차 전지 사업의 첫발이 됐다.

이후 유공이 울산에 세운 기술지원연구소는 1991년 전기차에 필요한 첨단 배터리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또, 1993년 한 번의 충전으로 약 120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와 배터리 개발에 성공하게 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묵묵부답 HAAH... 쌍용차 법정관리 가나

투자의향서 제출시한 넘겨

쌍용자동차가 생존을 위한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쌍용차의 운명을 쥔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가 법원이 요구한 시한까지 끝내 투자의향서(LOI)를 보내지 않으면서 쌍용차의 미래도 안갯속으로 흘러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쌍용차의 단기법정관리

(P플랜) 돌입에도 차질이 발생하면서 이제 공은 사실상 법원으로 넘어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오전까지 HAAH오토모티브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지 못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에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의향서를 보정명령 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쌍용차는 HAA

H오토모티브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쌍용차는 늦어도 이날 새벽에 HAAH오토모티브의 투자의향서를 받아 내용을 검토한 뒤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HAAH오토모티브는 당초 약속한 시점까지 끝내 투자의향서를 보내오지 않았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4월의 첫날 코로나19 확진자 551명... 이틀째 500명대
▲ 백신 1차 접종 87만명 넘어서... “추가 사망 2건 인과성 확인 중” /사진 뉴스시스

▲ AZ 접종 정은경 “먼저 맞아 송구... 접종 순서 오면 꼭 응해달라”
▲ 서울의료원 찾은 뭇 “의료진에 마땅한 대우 보장해야”



▲ 박영선, 용산참사 현장 찾아 “뭇, 언어폭력... 10년 전서 안 변해” /사진 뉴스시스
▲ 서울시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유치’ 제안서 IOC에 제출